

### 저녁의 통일속망을 들어주시려고 (9)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82(1993)년 4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이 새로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던 시기에 발표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은 동서방전체제가 무너진 기회를 리용하여 이른바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간판밑에 세계도처에서 자주적으로 나가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판적인 무력간섭과 강도적인 정치경제적압박을 악랄하게 감행해나섰다. 특히 미국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고있는 우리 나라를 압박하기 위하여 침략과 간섭의 창끝을 조선반도에 집중하였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극소수 반민족세력들의 범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전진되어가던 북남대화와 동결상태에 빠지고 한때 완화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가던 모든 움직임들이 정지상태에 들어갔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민족앞에 계속 분열되어 서로 반목대결하면서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느냐 아니면 단결하여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통일을 이루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제

기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적대단합을 이룩하여 민족사제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민족의 출로를 공동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내놓으시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적대단결의 총적목표와 리념적초기 밝혀져있으며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구체적방도들이 명백하게 제시되어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민족대단결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민족대단결의 력사적 경험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의 광복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전진되어가던 북남대화과 동결상태에 빠지고 한때 완화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가던 모든 움직임들이 정지상태에 들어갔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민족앞에 계속 분열되어 서로 반목대결하면서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느냐 아니면 단결하여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통일을 이루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제

#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부주제군상들이 부각된 기단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편)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남조선에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통일의 큰 열쇠》, 《통일의 지름길》, 《7천만겨레의 오늘의 좌표와 매일의 위향관》이라는 지지와 찬양의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려나왔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더욱 고조되었다.

해외에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하는 서명운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 관철을 위한 사변으로 되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성스러운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리정표로 되

명하였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 200여명은 위대한 수령님께 련대성전문을 올리고 110여개 나라의 1000여종의 출판물들이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광범히 보도하였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서명운동에는 세계 150여개 나라에서 정부수반급들, 국회의원들, 시장들, 각계 인민들 17억 3000여만명이 참가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의 주체적힘으로 실현하기 위한 길을 환히 밝혀준 민족단합의 대헌장이다.

리해현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지난 6월 15일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은 공동토론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비핵화를 이룬다》로 요약된다.」고 하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군사적충돌가능성이 높아질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각계층 단체들도 미국에 의존한 《대북강경정책》을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전쟁대결정책이라고 단죄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철회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각계층에서 터져 나오는 이러한 목소리는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윤석열대당에 대한 신랄한 단죄이다.

윤석열대당이 추구하는 동족대결정책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근원인 것으로 보고있다.

북남관계는 서로가 상대를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로 나아가야 할 동족으로 여길 때에만 발전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현 집권세력은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행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그것이 바로 《주적론》의 고취이다.

이미 윤석열의 입에서 《북은 주적》, 《선제타격》과 같은 도발적인 폭언들이 연이어나오고 군부계력들이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다시 쏘아박아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력사의 오물통에 구겨박혔던 《주적》론을 다시 부활시키고있는것은 잘 알려저있다. 《주적》론의 부활은 동족에 대한 적대행위의 집중적발로이다. 이것이 북과 남사이의 불신하는 더욱 증대시키고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중대로 이어지게 된다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윤석열의 동족대결정책은 이전 보수 《정권》들의 대결정책의 복사판이다.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이 팔수에 딱 들어찬 리명박역적대당은 집권 전 기간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류

광고하며 북남관계를 과거보다 더 엄격한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현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동족대결정책은 미국의 반공화국대시엄살정책을 그대로 추종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외세추종과 사대매국의 극치이기도 하다.

력대로 공화국을 눈에 든 가치처럼 여기면서 제재와 압살책동에 광분해온 미국은 지금 저들의 범죄적인 목적을 어떻게 하나 이루어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미국의 이 범죄적인 대조선압살책실현의 독격대가 되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치고있는것이 윤석열대당이다.

윤석열대당은 집권 전면과과국상태에 몰아넣었다. 한편 저들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이라고 애대면서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악랄하게 협공하고 외세와 함께 동족을 해치기 위한 정치적으로도발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림으로써 조선반도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위험속에 몰아넣었다.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이 팔수에 들어찬 박근혜대당 역시 그 무슨 《신티프로세스》니, 《통일은 대박》이니 하며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었다.

그것으로 결국 초래된것은 북남사이에서 총포탄이 오가는 위험천만한 국면, 일족폭발의 위기였다.

윤석열대당은 온 겨레의 규탄배격을 받고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이러한 시대착오적이며 위험천만한 동족대결정책을 다시 고집내어 저들의 《대북정책》으로

## 동족대결정책은 긴장격화의 근원

하자마자 《한미동맹강화》를 령설하면서 미국산전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 확대와 《한미장외협력체》의 재가동, 미전략자산의 남조선진격을 모의하는 등 미국의 북침전쟁마차를 맨 앞장에 서 끌고있다.

말그대로 윤석열은 미국이 쥐여준 북침전쟁불통치를 들고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있다.

윤석열대당이 추구하는 동족대결정책이말로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반민족적책이다.

최근 지은데로 간다고 윤석열대당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 평화를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여 반민족적인 동족대결정책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온 민족의 더 큰 저주와 배격을 받고 비참한 과멸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김영호

### 통일을 불러

## 래권도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한 애국지사 (3)

아무튼 평양으로 가보자!  
이 구원의 손길을 놓치면 자기도 래권도로 영영 일어설수 없다는 생각이 이른 최흥희선생은 단호히 결심을 내었다.

화창한 봄빛이 무르익던 1979년 4월 어느날, 베이징-평양행 비행기로 평양비행장에 도착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극진히 환대해주는데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렇게 반겨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물라보게 변모된 공화국의 모습과 내사자란 고향의 모습에서 그는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변할수 없는것이 바로 동포애의 정, 혈육의 정임을 가슴 뜨겁도록 느끼었다.

그를 수록 통일에 대한 갈망이 가슴속에 차오른 최흥희선생이었다.

그러던 주체68(1979)년 5월 12일,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공화국방문의 길에 오른 당초부터 품고있었던 간절한 소망이기는 하였으나 갈망이 갈수록 대지는 못했던 최흥희선생에게 있어

서 이것은 너무나도 꿈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렬어놓았다.  
《...우선 우리 민족의 지도에 관한 주석님의 교견을 직접 그분으로부터 듣고싶었다.

더우기는 그곳에 도착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건설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이복사회를 오늘의 수준으로 이끌어올린 주석님을 만나뵈고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 고싶은것이 나의 소망이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래 권도의 앞날과 통일문제를 말씀드리고 교견을 듣고저 하였다. ... 그리고 지난날의 자신의 죄과도 주석님앞에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싶었다. ...》

이날 일개 평범한 해외동포에 불과한 자신을, 한때 총부리북에 겨누었던 사람을 직접 현판에까지 나와 맞이하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한없는 도량과 인품은 그를 순간에 매혹시키었다.

《최선생!》이라고 존대하여주시며 이와 같은 상봉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 같이 손잡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까지 대단히 큰

의의를 가진다고, 조국에 오기를 참 잘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우리로서 그 가슴은 이미 누를 법이 누를수 없는 감격을 그분 으로부터 듣고싶었다.

그가 군사과소 《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해외로 망명하여 래 권도로 민족의 얼을 빛내이며 그 수준으로 이끌어올린 주석님을 위해 애국심을 간직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리고 해외에서 퇴역장사들과 《배달군인회》를 못하고 《배달신보》를 발행하여 통일운동을 벌려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과분한 평가의 교시에 충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던 최흥희선생은 지난날의 경력을 그이께 솔직히 렬어놓고 진심을 담아 자기의 잘못을 사죄하는 말씀을 아뢰이 고 하였다.

그가 지난 일들을 놓고 흥금을 더 놓는데 대해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는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최선생!》이라고 존대하여주시며 이와 같은 상봉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 같이 손잡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까지 대단히 큰

해어질 때에는 문밖까지 나오 시어 차가 산비탈을 돌아갈 때까지 손을 들어 바래주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은 것은 그를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나게 한 운명의 사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캐나다로 돌아간 후 최흥희선생은 잠시 《통일로 가는 길》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는 사정을 정중히 모시고 수십명의 사진을 넣어 조국의 현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발행하고있던 《배달신보》를 조국통일을 위한 대변지로 전환시켜 언론활동을 활발히 벌리었다.

한편 캐나다교포신문 《뉴 코리아 타임스》지에 《통일의 한걸음에》라는 글을 투고하여 독재 《정권》의 반동일적, 반민족적행위를 폭로규탄하고 통일의 절박성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그는 캐나다에서 가졌던 래 권도관련자들과의 모임에서 자기의 소신을 이렇게 표명했다.  
《애국애족이 없는 래 권도, 나라의 통일에 기여하지 않는 래 권도는 진정한 래 권도가 아니다. 돈이나 벌고 개인의 향락과 명예를 위한 래 권도는 우리에게 필요없다.  
래 권도를 가지고 순수 스포츠나 돈벌이를 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라의 통일사업을 하자것이다.》

그결심대로 그는 래 권도를 무기로 통일애국위업에 주저없이 몸을 던졌다.

본사기자

# 《남북대결과 통일애국위업에 이바지한 애국지사 (3)》

### -남조선에서 《보안법폐지촉구 청년기자회견》 진행-

남조선에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가 6월 18일 서울의 통산 《대통령실》앞에서 《보안법폐지촉구 청년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22돐을 맞아 윤석열(정부)에 북남합의를 리해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보안법》을 폐지할것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고 한다.

민애청은 기자회견에서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넘긴뒤 북남공동선언을 발표했고 그후 남북관계가 많이 발전했으나 여전히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보안법이 존재하고있 어 민족화해와 통일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 단체의 한 회원은 발언을 통해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상호인정》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화해협력하는것이 다.》. 《보안법이 있는한 통일은커녕 남북교류협력도 로인할뿐》이라고 하면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보안법》을 폐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 발언한 민애청 회장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는 《아무리 살피고봐도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찾아볼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당시 《북은 주적이며 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중심의 교육과 이를 통한 정신전력강화를 계획하고있었다고 하였다.

《북이 적》이란 단어를 강화하겠다는데 남북관계 개선과 나아가 통일을 이야기할수 있을지 의문》이

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진행한 민애청 사무국장은 《윤석열정부가 남북대결만 조장하는게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구걸의료를 하고있다. 일본이 독도영토도굴을 자행하고있는데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도모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하면서 당국에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것을 요구하였다.

민애청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길은 바로 남북대결과 외세의 전쟁연습이 아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대당에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는 《보안법》부터 폐지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민애청은 매주 1인시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보안법》폐지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사기자

##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북 각계층의 투쟁 반민족적인 통일론의금지조치를 배격하여



조국방문의 나날의 최흥희총재 (가운데)

남조선에서 범죄적인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을 반대배격하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 박정희대국 《정권》은 인민들에 대한 파쇼폭압을 더욱 강화하는데로 나갔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군사과소도당의 극악한 탄압속에서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특히 광범한 사회계층 박정희도당이 70년대 후반기에 가서나

통일을 논의할수 있다고 하면서 취한 통일론의 금지조치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열화같은 요망》을 배신하는 행위》. 《통일보다 분열을 영구화하려는것》이라고 하면서 절결히 반대배격하였다.

또한 미국과 군사과소도당이 분열정책의 방패로 삼고있는 《유엔감시회의 통일안》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망상으로 단죄하면서 《통일문제를 막연하게 타의에 맡겨버릴것이 아

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게 자주성을 살려 추진성있게 이끌고나가야 한다.》. 《통일문제가 강대국들에 의하여 처리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민족자결의식을 높이며 통일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민족주체성의 형성성이 빠르면 빠른수록 통일에의 길은 가까와온다.》고 주장하였다.

각계층의 통일열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계에서도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통일방안》은 《남북이 공동으로 제안수락하는 통일안》이라고 하면서 북과 남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통일에로 한걸음한걸음 접근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남조선에서 사대매국세력, 반통일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파고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진